**위방가경**

(Vibhaṅgasuttaṃ- Explanation- 분별경, 상윳따니까야 S12.1.2, 전재성님역)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싸밧티의 제따바나에 있는 아나타삔디까 승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수행승들이여'라고 수행승들을 부르셨다. 수행승들은 '세존이시여'라고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를 분별하여 설하겠다. 그것을 잘 듣고 숙고해라. 내가 설명하겠다."

그러자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수행승들은 세존께 대답했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세존]

"수행승들이여,

연기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며,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함께 생겨난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늙고 죽음이란 무엇인가? 낱낱의 뭇삶의 유형에 따라 낱낱의 뭇삶이 늙고 노쇠하고 쇠약해지고 백발이 되고 주름살이 지고 목숨이 줄어들고 감역이 노화되는 이것을 수행승들이여, 늙음이라고 부른다. 낱낱의 뭇삶의 유형에 따라 낱낱의 뭇삶이 죽고 멸망하고 파괴되고 사멸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존재의 다발이 파괴되고 유해가 내던져지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은 늙음과 이와 같은 죽음을 수행승들이여, 늙고 죽음이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태어남이란 무엇인가? 낱낱의 뭇삶의 유형에 따라 낱낱의 뭇삶이 출생하고 탄생하고 강생하고 전생하고 모든 존재의 다발들이 나타나고 감역을 얻는 이것을 수행승들이여, 태어남이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존재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세 가지 존재, 즉 감각적 쾌락의 존재, 형상의 존재, 무형상의 존재가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존재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취착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네 가지 취착, 즉 감각적 쾌락에 대한 취착, 견해에 대한 취착, 미신적 관습에 대한 취착, 자아이론에 대한 취착이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취착이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갈애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여섯 가지 갈애의 무리, 즉 형상에 대한 갈애, 소리에 대한 갈애, 냄새에 대한 갈애, 맛에 대한 갈애, 감촉에 대한 갈애, 사물에 대한 갈애가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갈애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감수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여섯 가지 감수의 무리, 즉 시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 청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 후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 미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 촉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 정신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가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감수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감촉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여섯 가지 접촉의 무리, 즉 시각의 접촉, 청각의 접촉, 후각의 접촉, 미각의 접촉, 촉각의 접촉, 정신의 접촉이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접촉이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여섯 감역이란 무엇인가? 그것들 가운데는 여섯 가지 감역의 무리, 즉 시각의 감역, 청각의 감역, 후각의 감역, 미각의 감역, 촉각의 감역, 정신의 감역이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여섯 감역이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명색이란 무엇인가? 그것에는 감수, 지각, 사유, 접촉, 숙고가 있으니 이것을 명이라고 부르고 네 가지 물질요소, 또는 네 가지 물질요소로 이루어진 형태를 색이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의식이란 무엇인가? 수행승들이여, 그 것들 가운데는 여섯 가지 의식, 즉 시각의식, 청각의식, 후각의식, 미각의식, 촉각의식, 정신의식이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의식이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무엇을 형성이라고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그것들 가운데는 세 가지 형성, 즉 신체의 형성, 언어의 형성, 정신의 형성이 있으니 수행승들이여, 이것을 형성이라고 부른다.

또한 수행승들이여,

무엇을 무명이라고 하는가? 수행승들이여, 괴로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해 알지 못하는 이것을 수행승들이여, 무명이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수행승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생겨나고,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 감역이 생겨나며, 여섯 감역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가 생겨나고, 갈애를 조건으로 취착이 생겨나며,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함께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사라져 소멸하면 형성이 소멸하고, 형성이 소멸하면 의식이 소멸하며, 의식이 소멸하면 명색이 소멸하고, 명색이 소멸하면 여섯 감역이 소멸하며, 여섯 감역이 소멸하면 접촉이 소멸하고, 접촉이 소멸하면 감수가 소멸하며, 감수가 소멸하면 갈애가 소멸하고, 갈애가 소멸하면 취착이 소멸하며, 취착이 소멸하면 존재가 소멸하고, 존재가 소멸하면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하면 늙고 죽음, 우울, 슬픔, 고통, 불쾌,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소멸한다."

註.

- 분별 :

붓다의 교단은 일찍이 分別說(vibhajjavadin)의 교단으로 알려져 있었다. 분별설이란 아주 상세히 분석하여 가르치는 방법을 의미한다.

- 다발 : khandha :

한역에서 온(蘊)이라 번역하는 것으로 존재의 구성요소인 5온을 뜻한다. 이 단어는 근육이 뭉쳐 있는 어깨나 몸통, 덩어리, 줄기, 근간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존재의 다발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현대철학에서도 '인식의 다발'등의 용어가 흔히 사용되기 때문이다.

- 강생, 전생 :

강생(降生)은 붓다고싸에 의하면 알이나 태(胎)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존재의 태어남을 의미하며, 전생(轉生)은 습기에서 태어나거나(濕生),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化生)을 말한다.

- 세 가지의 존재 :

한역에서는 三有라고 한다. 세 가지의 존재란

1) 감각적 쾌락의 존재(欲有)

2) 형상의 존재(色有)

3) 무형상의 존재(無色有)이다.

감각적 쾌락의 존재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과 하늘에 사는 거친 육체를 지닌 존재를 의미하고,

형상의 존재는 초선천(初禪天)에서부터 정거천(淨居天)에 이르기까지의 범천계에 사는 청정한 육체를 지닌 존재를 의미하며,

무형상의 존재는 空無邊處, 識無邊處 등이 있는데 거기서 사는 육체를 갖고 있지 않은 순수한 정신적 존재를 뜻한다.

- 네 가지의 취착 :

한역에서 四取라고 한다. 여기에는

1) 감각적 쾌락에의 취착(欲取)

2) 견해에의 취착(見取)

3) 미신적 관습에의 취착(戒禁取)

4) 자아이론에 대한 취착(我語取)이 있다. 붓다고싸에 의하면, 미신적 관습에의

취착은 예를 들어 인도에서 사람들이 개나 소 따위가 죽은 뒤에 천상에 태어난다고 믿어서 개나 소처럼 똥을 먹고 풀을 먹으면서 천상에 태어나겠다고 집착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자아이론에 대한 취착은 '나와 나의 것' 을 고집하는 견해(有身見)에의 집착을 뜻한다.

- 여섯 가지 갈애의 무리 :

한역에서 六愛身이라고 한다. 여섯 가지 감각대상에 대한 갈구나 갈망을 말한다. 여기에는

1) 형상에 대한 갈애(色愛)

2) 소리에 대한 갈애(聲愛)

3) 냄새에 대한 갈애(香愛)

4) 맛에 대한 갈애(味愛)

5) 감촉에 대한 갈애(觸愛)

6) 사물에 대한 갈애(法愛)가 있다.

이들은 모두 경험대상인 육경에 대한 갈애를 뜻하는데, 시각대상에의 갈애, 청각대상에의 갈애, 후각대상에의 갈애, 미각대상에의 갈애, 신체인상에의 갈애, 정신대상에의 갈애의 의미이다.

- 여섯 가지 감수의 무리 :

한역에서 六受身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1) 시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眼觸所生受)

2) 청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耳觸所生受)

3) 후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鼻觸所生受)

4) 미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舌觸所生受)

5) 촉각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身觸所生受)

6) 정신의 접촉에서 생기는 감수(意觸所生受)가 있다.

여기서의 번역은 일상어로서의 번역원칙에 따라서 시각의 접촉에서 생겨나는 감수 등으로 번역했으나 '시각의 촉발에 의해 생겨나는 감수' 등으로 학문적으로 엄밀히 번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함경에서는 감수의 분류에서 괴로움(苦受), 즐거움(樂受),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不苦不樂受) 세 가지 감수로 분류한다. '云何爲受 謂三受 苦受樂受 不苦不樂受'

- 여섯 가지 접촉의 무리 :

한역에서 六觸身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1) 시각의 접촉(眼觸) 2) 청각의 접촉(耳觸) 3) 후각의 접촉(鼻觸) 4) 미각의 접촉(舌觸) 5) 촉각의 접촉(身觸) 6) 정신의 접촉(意觸)이 있다.

- 여섯 감역 :

六入이라고 한역한다. 원래 한역에서 入이라고 번역되는 ayatana는 영역이나 장을 말한다. 여기서는 1) 시각의 영역(眼入) 2) 청각의 영역(耳入) 3) 후각의 영역(鼻入) 4) 미각의 영역(舌入) 5) 촉각의 영역(身入) 6) 정신의 영역(意入)이 있다. 감각영역이라고 할 때는 여섯 감각능력(六根)과 여섯 감각대상(六境)이 활동하는 장(場)을 의미한다. 여섯 감각영역은 물론 시각영역, 청각영역, 후각영역, 미각영역, 촉각영역, 의식영역이라고 각각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

- 명색 : 名色.

그 가운데 정신적인 요소를 명이라고 하고, 물질적인 요소를 색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정신적인 요소에는 감수(受) 지각(想) 의도(思) 접촉(觸) 숙고(作意)가 있다. 아함경에서는 이 명에 관해서 아래와 같이 오온 가운데 물질적인 요소인 색을 제외한 것으로 정확히 정의하고 있다. '云何名 謂四無色陰 受陰想陰行陰識陰' 그런데 붓다고싸는 의도, 접촉, 숙고가 형성의 다발(行蘊)에 속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북전아함과 달리 의식의 다발이 제외된 것은 그것이 모든 존재의 다발의 기반이 되므로 이미 선행하는 연기의 고리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인 것같다. 물질적인 요소인 색은 네 가지의 일차적인 물질요소(四大)와 거기에서 조건적으로 성립하는 이차적인 물질요소(所造色)가 있다. 네 가지의 일차적 물질요소는 지수화풍(地水火風)이 있는데, 이것은 각각 원자적인 요소로서의 땅, 물, 불, 바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붓다고싸에 따르면 땅은 '배척적인 견고성' 물은 '화합하는 유동성' 불은 '에너지' 바람은 '운동성' 을 나타내며 이러한 물질의 기본적인 속성을 조건으로 해서 이차적 물질로 구성되는 감각영역(감각능력+감각대상)이 성립하는 것이다.

- 의식 : 識.

의식의 집합을 뜻하는데, 의식이란 여섯 가지의 감각능력과 거기에 대응하는 감각대상이 반응하는 작용이다. 그러나 의식은 왈풀라 라훌라에 의하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일종의 알아차림이다. 대상의 존재를 아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눈이 파란색의 물체를 보았을 때 안식(眼識)은 빛깔의 존재를 알아챌 뿐이고 파란색이란 것을 인식하지는 못한다. 이 단계에서는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의식에는 여섯 가지의 의식의 무리(六識身)가 있다. 여기에는 1) 시각의식(眼識) 2) 청각의식(耳識) 3) 후각으식(鼻識) 4) 미각의식(舌識) 5) 촉각의식(身識) 6) 정신의식(意識)이 있다.

**(識을 설명할 때 삼세의 윤회를 설명하는 12연기에서의 식은 재생연결식이고 일반적인 각지의 설명으로서는 六識身(찰라연기의 설명에 알맞음)이다. 그런데 왈풀라 라훌라의 “일종의 알아차림”, “대상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식을 설명하는 것은 오문전향에서의 방법이다. 이것을 혼동하면 많은 혼란이 생긴다.**)

- 형성 :

行으로 한역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sankhara의 원래 의미를 살려서 형성이라고 번역한다. 형성은 두 가지의 상이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sankhara는 정신적 측면에서 형성되는 것의 의미를 지니며 선악의 행위에 관련되는 정신에 사용된다. 선악의 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전생에서부터 정신에 남아 있다가 현세에서 작용하며 내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업력(業力)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수많은 윤회를 거치면서 잠재되어 있는 형성이 적절한 조건과 만나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존재의 다발(오온)과 12연기에서는 언제나 이러한 의미로 쓰인다.

둘째 sankhara는 형성된 것이란 의미로, 모든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때 sankhara는 有爲法의 dhamma라는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사용된 형성의 의미는 첫번째 것으로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신체의 형성(身行) 2) 언어의 형성(言行) 3) 정신의 형성(意行)이다.

- 무명 : 無明. 무명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에 관해서 무지한 것을 뜻한다. 각각 1) 괴로움(苦) 2) 괴로움의 원인(集) 3) 괴로움의 소멸(滅) 4)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道)에 관해 무지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북전아함에서는 일체의 다양한 법에 관해 무지를 무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Suttantapiṭake
Saṃyuttanikāyo
Dutiyobhāgo
Nidānavaggo
1.Abhisamayasaṃyuttaṃ
1.Buddhavaggo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1. 1. 2.

Vibhaṅgasuttaṃ

2. Sāvatthiyaṃ - 1

Paṭiccasamuppādaṃ vo bhikkhave, desissāmi. Vibhajissāmi. Taṃ suṇātha. Sādhukaṃ manasikarotha. Bhāsissāmī'ti. Evaṃ bhante'ti kho te bhikkhū bhagavato paccassosuṃ. Bhagavā etadavoca:

Katamo ca bhikkhave, paṭiccasamuppādo? Avijjāpaccayā bhikkhave, saṅkhārā.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Nāmarūpapaccayā saḷāyatanaṃ. Saḷāyatanapaccayā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Vedanāpaccayā taṇhā. Taṇhāpaccayā upādānaṃ. Upādānapaccayā bhavo. Bhavapaccayā jāti. Jātipaccay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sambhav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samudayo hoti.

Katamañca bhikkhave, jarāmaraṇaṃ? Yā2 tesaṃ tesaṃ sattānaṃ tamhi tamhi sattanikāye jarā jīraṇatā khaṇḍiccaṃ pāliccaṃ valittacatā āyuno saṃhāni indriyānaṃ paripāko, ayaṃ vuccati jarā.

Katamañca bhikkhave, maraṇaṃ? Yā2 [PTS Page 003] [\q 3/] tesaṃ tesaṃ sattānaṃ tamhā tamhā sattanikāyā cuti cavanatā bhedo antaradhānaṃ maccumaraṇaṃ kālakiriyā khandhānaṃ bhedo kalebarassa3 nikkhepo jīvitindriyassa upacchedo4. Idaṃ vuccati maraṇaṃ. Iti ayañca jarā idañca maraṇ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jarāmaraṇaṃ.

Katamā ca bhikkhave, jāti? Yā tesaṃ tesaṃ sattānaṃ tamhi tamhi sattanikāye jāti sañjāti okkanti nibbatti abhinibbatti, khandhānaṃ pātubhāvo āyatanānaṃ paṭilābho, ayaṃ vuccati bhikkhave, jāti.

Katamo ca bhikkhave, bhavo? Tayome bhikkhave, bhavā: kāmabhavo, rūpabhavo, arūpabhavo. Ayaṃ vuccati bhikkhave, bhavo.

--------------

\* Katthaci na dissati.

1. Sāvatthiyaṃ viharati. - Syā. 2. Yaṃ-sīmu, sī, 1, 2 3. Kalevarassa - syā, machasaṃ 4. Jīvitindriyassa upacchedo, ayaṃ pāṭho na dissate. - Sīmu. Machasaṃ. Machasaṃ, sīmu. Na dissate.

[BJT Page 006] [\x 6/]

Katamañca bhikkhave upādānaṃ? Cattārimāni bhikkhave, upādānāni: kāmūpadānaṃ, diṭṭhūpādānaṃ, sīlabbatūpādānaṃ, attavādūpādān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upādānaṃ.

Katamā ca bhikkhave taṇhā? Chayime bhikkhave, taṇhākāyā: rūpataṇhā saddataṇhā gandhataṇhā rasataṇhā phoṭṭhabbataṇhā dhammataṇhā. Ayaṃ vuccati bhikkhave taṇhā.

Katamā ca bhikkhave vedanā? Chayime bhikkhave, vedanākāyā: cakkhusamphassajā vedanā, sotasamphassajā vedanā, ghāṇasamphassajā vedanā, jivhāsamphassajā vedanā, kāyasamphassajā vedanā, manosamphassajā vedanā. Ayaṃ vuccati bhikkhave vedanā.

Katamo ca bhikkhave phasso? Chayime bhikkhave, phassakāyā: cakkhusamphasso, sotasamphasso, ghāṇasamphasso jivhāsamphasso, kāyasamphasso, manosamphasso. Ayaṃ vuccati bhikkhave, phasso.

Katamañca bhikkhave saḷāyatanaṃ? Cakkhāyatanaṃ sotāyatanaṃ ghāṇāyatanaṃ jivhāyatanaṃ kāyāyatanaṃ manāyatan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saḷāyatanaṃ.

Katamañca bhikkhave nāmarūpaṃ? Vedanā saññā cetanā phasso manasikāro, idaṃ vuccati nāmaṃ. Cattāro [PTS Page 004] [\q 4/] ca mahābhūtā, catunnaṃ ca mahābhūtānaṃ upādāyarūpaṃ, idaṃ vuccati rūpaṃ. Iti idañca nāmaṃ, idañca rūp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nāmarūpaṃ.

Katamañca bhikkhave viññāṇaṃ? Chayime bhikkhave, viññāṇakāyā: cakkhuviññāṇaṃ sotaviññāṇaṃ ghāṇaviññāṇaṃ jivhāviññāṇaṃ kāyaviññāṇaṃ manoviññāṇaṃ. Idaṃ vuccati bhikkhave, viññāṇaṃ.

Katame ca bhikkhave saṅkhārā? Tayome bhikkhave, saṅkhārā: kāyasaṅkhāro vacīsaṅkhāro cittasaṅkhāro. Ime vuccanti bhikkhave, saṅkhārā.

Katamā ca bhikkhave avijjā? Yaṃ kho bhikkhave dukkhe aññāṇaṃ, dukkhasamudaye aññāṇaṃ, dukkhanirodhe aññāṇaṃ, dukkhanirodhagāminiyā paṭipadāya aññāṇaṃ, ayaṃ vuccati bhikkhave, avijjā.

Iti kho bhikkhave avijjāpaccayā saṅkhārā, saṅkhārapaccayā viññāṇaṃ. Viññāṇapaccayā nāmarūpaṃ. Nāmarūpapaccayā saḷāyatanaṃ. Saḷāyatanapaccayā phasso. Phassapaccayā vedanā vedanāpaccayā taṇhā. Taṇhāpaccayā upādānaṃ. Upādānapaccayā bhavo. Bhavapaccayā jāti. Jātipaccay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ūpāyāsā sambhav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samudayo hoti.

Avijjāya tveva asesavirāganirodhā saṅkhāranirodho. Saṅkhāranirodhā viññāṇanirodho. Viññāṇanirodhā nāmarūpanirodho. Nāmarūpanirodhā saḷāyatananirodho. Saḷāyatananirodhā phassanirodho. Phassanirodhā vedanānirodho. Vedanānirodhā taṇhānirodho. Taṇhānirodhā upādānanirodho. Upādānanirodhā bhavanirodho. Bhavanirodhā jātinirodho. Jātinirodhā jarāmaraṇaṃ, sokaparidevadukkhadomanassupāyāsā nirujjhanti. Evametassa kevalassa dukkhakkhandhassa nirodho hotī'ti.

[BJT Page 008] [\x 8/]

Sutta Pitaka
Saṃyutta Nikāya
Division II - Nidāna
Book 12 - Abhisamaya Saṃyutta
Chapter 1 - Buddha Vagg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uddhassa

12. 1. 2.

(2) Vibhaṅga - Explanation

1.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lived in the monastery offered by Anāthapiṇḍika in Jeta's grove in Sāvatthi.

2. From there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monks: “Monks!” Those monks replied: “Yes, venerable sir.” And the Blessed One said thus:

“Monks, I teach and explain to you dependent arising, attend and listen carefully.”

Those monks replied: “Yes, venerable sir.”

3. The Blessed One said: “Monks, what is dependent arising? On account of ignorance arise determinations. On account of determinations arise consciousness. On account of consciousness arise name and matter. On account of name and matter arise the six spheres. On account of the six spheres arise contact. On account of contact arise feelings. On account of feelings arise craving. On account of craving arise seizing. On account of seizing arise being. On account of being arise birth. On account of birth arise decay, death, grief, lament, unpleasantness displeasure and distress. Thus arises the complete mass of unpleasantness.

4. “Monks, what is decay and death?

“The decay seen in this and other categories of beings in the form of broken teeth, signs of age, grey hair wrinkled skin, decrease of the life span, the decay of the mental faculties. This is called decay.

“The disappearing, moving away, breaking up, non evidence in time, the breaking up of the masses and laying down of the carcass of this and other categories of beings is called death. Monks, that decay and this death is called decay and death.

5. “Monks, what is birth? The birth, growth, appearance, rebirth, the manifestation of the masses, and the gain of the spheres of this and other category of beings is called birth.

6. “Monks, what is being? Monks, being is threefold. It is the prevalence in thoughts in sensuality, in material states and in immaterial states. Monks, this is called being.

7. “Monks, what is holding? Monks, the mind's way of holding is fourfold. That is holding to sensuality, holding to views, sticking to virtues and seizing a view of a self. Monks, these are the four ways of holding.

8. “Monks, what is craving? Monks, there are six masses of craving. Someone craves for forms, for sounds, for scents, for tastes, for touches and for ideas. Monks, these are the six masses of craving.

9. “Monks, what is feeling? Monks, there are six bodies of feelings. Feelings arising to someone through eye-contact, through ear contact, through nose contact, through tongue contact, through body contact and through mind contact. Monks, these are the six bodies of feelings.

10. “Monks, what is contact? Monks, there are six bodies of contact. The contact of eye, the contact of ear, the contact of nose, the contact of the tongue, the contact of the body and the contact of mind. These are the six bodies of contact.

11. “Monks, what are the six spheres? It is the sphere of the eye, sphere of the ear, sphere of the nose, sphere of the tongue, sphere of the body and the sphere of the mind. Monks, these are the six spheres.

12. “Monks, what is name and matter? Feelings, perceptions, intentions, contact and mental attention are name. The four great elements and this form seized from them as me or mine is matter. And this name and this matter form name and matter.

13. “Monks, what is consciousness? There are six bodies of consciousness. They are eye-consciousness, ear-consciousness, nose - consciousness, tongue-consciousness, body - consciousness and mind-consciousness. These are the six bodies of consciousness.

14. “Monks, what are determinations? Monks, determinations are threefold as bodily determinations, verbal determinations and mental determinations. These are the threefold determinations.

15. “Monks, what is ignorance? Monks, if someone does not know unpleasantness, the arising of unpleasantness, the cessation of unpleasantness and the path leading to the cessation of unpleasantness. To that is said ignorance.

16. “Thus, monks, on account of ignorance arise determinations, on account of determinations arise consciousness ... re ... Thus the complete mass of unpleasantness, arise. With the cessation of ignorance without a remainder, determinations cease. With the cessation of determinations, consciousness ceases ... re ... Thus comes about the cessation of the complete mass of unpleasantness.”